

지역 언론사 여기자
- ‘지역’ 과 ‘여성’ 이라는 다중의 속에서

kbc 주방송 · 서강대 여성학
정의진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여기자가 언론사 조직 안에서 고 있는 에 대해 살 보는 것이다. 성 중심 문화로 점 된 언론사 조직 문화에서 여기자가 는 더 위계에 따른 을 다루고, 더불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기 위해 출범한 한국여기자협회에서도 그 ‘자격’ 을 인정 받지 못하는 지역 여기자들의 실태를 점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여기자들에 대한 다양한 문헌 조사(학 논문, 한국여기자협회 발간자료, 신문기사)를 바 으로 필자가 참여한 제41대 주전 기자협회 성폭력 실태조사와 직 재한 내용 을 중심으로 살 다.

본 연구 2장에서는 지역 언론과 여기자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한다. 3 장에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언론의 실태 을 간략히 살피고 한국여기자협회의 출범과 한계 을 밝 다. 마지막 결론 4장에선 조직 안에서 지역 여기자들에 대한 이 어 게 이 지는지 살 보고, 이에 대한 대 결과 을 토하고자 한다.

한국 언론계에서 여기자의 위상은 시작부터 양적이나 질적으로 한정된 영역 안에서 평가 절하돼 왔다. 그러나 점 여기자 수가 늘고 재 영역도 기존의 경제·문화 분야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 지는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자의 위상은 과거와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¹⁾. 그러나 여전히 지역 언론은 중 언론이 아닌 주변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조직에 소속된 여기자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은 더 위계에 따른 과 성폭력에 노출 돼 있다. 더불어 지역 언론이라는 이유로 한국여기자협회에 가입조 하지 못하는 조직 안 의 을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 은 하 나의 얼 로 오지 않는다’ 는 전제 아래 지역 여기자가 고 있는 다양한

1) 언론사에서 여기자들은 입사할 때부터 남기자들과 다르게 업무 분야가 보다 공식적이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문화나 경제, 경제에서도 특히 유통 등의 분야로 한정돼 왔으며 이는 조직 내부에서 업무 평가에 따른 승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수의 열 을 살 보고 그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토

국내 학계에서 지역 언론과 여기자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된 소위 중 언론²⁾과 구 되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분석(강준만, 2019; 동일, 2016 임상준, 2019; 장호순, 2010)에 집중됐다. 여기자에 대한 논의 또한 기자와 대비한 여기자의 위상, 은 더 위계나 성폭력 (김양순, 2018; 이영이, 2004; 이후연, 2017; 명숙, 2006; 지아, 2016)에 초점이 맞 저 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 여기자에 대한 연구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인터 참여자나 연구 범위는 대부분 중 언론 여기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 언론 여기자에 대한 연구가 이 지더라도 언론사 조직 내부의 더 위계와 성 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 여기자와 중 언론 여기자간 구분에 따른 이나 배제 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기존 연구 작업의 형태는 학 논문, 언론 관련 조직(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언론진 재단, 관훈 령)에서 발행한 자료 이 있으며 방법은 심 인터 와 자료 조사 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런 여러 전제를 두에 두고 지역 여기자가 고 있는 다양한 에 대해 살 보고자 한다.

3.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한국여기자협회의 출범

1) ‘지역’ ‘여’ 기자의 현장

2018년 서지현 사의 미투 고발 이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에서도 더 감수성이 화두로 오르면서,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제41대 주전 기자협회에서는 은 해 6월 지역 기자협회 최초³⁾로 소속 기자 344명(주재기자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는 주전 기자협회보⁴⁾와 한

2) 서울에서 발행되거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단위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를 소위 ‘중앙 언론’이라고 부르며,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언론은 서울이 아닌 지역을 거점으로 발행되며, 해당 지역의 뉴스를 중심으로 다루는 언론사를 가리킨다. 주로 중앙 언론과 구별되는 용어로 쓰인다.

3) 한국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기자협회장이 상주하면서 운영되는 본부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협회가 있다. 한국기자협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개 시도협회 가운데 기자협회 차원에서 진행된 성폭력 실태조사는 2018년 제41대 광주전남기자협회에서 실시한 게 최초이며, 이는 그간 기자 사회에서 ‘자체’ 성폭력 이슈에 대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방증한다.

4) 광주전남기자협회 홈페이지,

국기자협회보⁵⁾에 게재됐다.

요약하자면 주전기자협회 소속 여기자의 85%가 성적인 담이나 성행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26.9%) 노조나 감사실 조직 내부나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2%에 그쳤다. ‘이야기해도 달라질 것 지 않다(24.7%)’거나 ‘대수지 알아하는 조직 분위기(22.2%)’가 원인으로 분석됐다.⁶⁾

더 위계에 따른 성폭력에 가감 없이 노출돼 있다는 방증으로, 이런 격한 위계 문화는 언론사 입사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성 중심의’ ‘사스와리’⁷⁾와 선배를 통해 학되는 재훈련, 장에서 부장, 국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보고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다(지아, 2016).

물론 1990년대 이후 성평개념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성의 언론계 진입과 활동 여건이 점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명숙, 2006). 무엇보다 양적 증가가 눈에 다. 2003년 언론계 전체 종사자(신문·방송·통신) 가운데 여성은 18.5%에 불과했으나 이후 여기자의 비은 준히 증가해 2019년 27.2%에 달했다. 은 기간 간부 비은 2.9%에서 7.6%로 증가했다(한국언론진재단, 2003; 2019). 그러나 지역 언론사의 사정은 다르다. 2019년 지역 일간지나 지역 방송사의 경우 여기자의 비은 각각 19.9%와 18.8%로 전국 평(27.2%)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지역 일간지의 경우 평기자의 비이 31.8%에 불과했다(한국언론진재단, 2019)⁸⁾. 세대 교체나 여기자 총원 정상적인 순환이 이 지지 않은 성권력형 업무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것이다.

권력이 성에게 집중돼 있는 조직의 운영은 대부분 성의 경험과 편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자라면 은 시간까지 재를 해야 하고 특종을 위해 언제든지 현장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아와 살 이라

http://gjpress.co.kr/module/board/board.php?bo_table=0103&wr_id=1006 참조.

5)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938> 참조.

6) 남기자의 경우 여기자보다 적은 50.2%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나, 성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기자들의 성실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사실이 아닌 거짓을 표기했다는 제보가 많았다.

7) 일본어로 ‘경찰서’를 뜻하는 사스와 ‘돌다’를 의미하는 마와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로, 언론사에 채용된 기자들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성별 구분 없이 여성과 남성 기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담당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을 체크하고 선배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일종의 수습 기간을 뜻하며 ‘기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선배들의 폭언과 폭행 등이 암묵적으로 용인된다.

8) 전국 언론사 평균 평기자의 비율이 53.2%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 일간지는 가장 낮은 31.8%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가장 업무량이 많은 평기자가 차장급 이상 기자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의미인데, 신규 인력이 총원되면서 세대 교체나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의 경력이 많은 기자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승진이 되는 구조는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는 돌 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성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Elmore, 2009; Hardin & Whiteside, 2009).

더구나 지역 언론의 경우 중 언론에 비해 언론사 소유주의 사유화가 심하고 지자체나 기업체와의 유에 게 노출돼 있다. 이는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으로 인해 언론 경영 위기가 심화되면서 언론사와 직원들이 고와 협찬의 밖에서 자유 지 못한 상 과도 밀 히 관련돼 있다 (명숙, 2006). 여전히 중 중심적 언론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언론의 경우 조직 모도 보다 작고 내용도 중 언론을 답 하는 경우가 많다(장호순, 2010).

중 과 구 되는 지역이라는 한계,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역 언론사의 부실한 경영 문제, 세대나 성 순환이 어려운 구조, 이로부터 지속되는 더 위계에 따른 과 성폭력 고 화 이 지역 언론사에 소속된 여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고 있는 현실이다.

2) 한국여기자협회 출범과 한계

한국여기자협회의 전신은 한국여기자 럽이다. 1960년대 들어 여기자들의 수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이를 바 으로 1961년 여기자의 권 호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국여기자 럽(이하 여기자 럽)이 발 됐다. 초대 회장이었던 정충 당시 연합통신 기자는 여기자 럽 단 10주년을 기념한 회고에서 “여기자들의 친목과 발전을 위한 의견 및 정보 교환 으로 전문 직책 완수에 상호부조하며 또한 여기자들의 권 호를 위해서 럽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이 하고 이런 생각은 중견 여기자들 누구나 갖고 있다는 데 비 어 발 을 서두르는 것이 겠다” 며 여기자 럽의 럽 배경을 밝 다.⁹⁾

이어 출범 43년 만인 2004년, 여기자 럽은 사단법인으로 새 게 출발하면서 한국여기자협회(이하 여기자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때부터 여기자협회는 여기자의 권 호뿐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사명 공 사업 확장과 양성평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니케이 강화 사업, 토 사업 에 나서게 된다(이영이, 2004).

29대째 한국여기자협회장을 선임한 여기자협회는 현재 회원사 31개사¹⁰⁾에

9) 김은주(2014), 한국의 여기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4-195쪽.

10) 한국여기자협회 회원사는 모두 31개사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뉴스1,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조선일보, 중앙일보, JTBC, 채널A, 코리아타임스,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

소속된 여기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와 저 지원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의 여기자상과 언론 포럼 대내외적인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더불어 여기자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더 감수성 실태조사 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 목표인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세우고, 여전히 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또 하나의 금을 내기 위해 도전하겠다’ 는 지침 아래 관련 기사 을 작성해 온라인과 책자 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자의 권 호를 위해 출범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지역 여기자는 포함시 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원사로 된 30여 곳은 서울에 주소지를 소위 중 언론이라 불리는 신문과 방송, 통신사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언 한 자원 제공과 대내외적인 행사에 따른 또한 이들 회원사에 소속된 여기자들만의 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 여기자들을 ‘지역 언론’ 과 ‘여성’ 이라는 다중 의 소외에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더 위계 문화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 성을 게 만들고 성폭력 현실에 대한 방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해 기존의 성 중심적 조직 문화를 공고히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저 리 윤리에 포함되는 성평 을 실천해야하는 저 리스 에게 문제적으로 작용한다(한희정, 정의진, 2019).

4. ‘지역’ , ‘여성’ 의 소수의 열 에 노출된 ‘기자’

지역 여기자 가운데는 한국여기자협회의 존재 유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필자가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만난 지역 일간지·방송사 여기자들은¹¹⁾ 여기자협회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으며,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 가입과 동시에 여기자협회도 가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필자가 여기자협회에 지역 여기자의 가입이 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다. 2018년 당시 서지현 사의 미투 고발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와 여성가 부는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¹²⁾했는데, 해당 조사에 참여한 전문직 단체는 여변과

경제, 한국일보, CBS, KBS, MBC, MBN, SBS, TV조선, YTN(이하 가나다·알파벳순). 한편,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는 189개사다.

11) 2018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할 당시 지역 일간지·방송사 여기자 5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한국여기자협회 존재 유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질문했다.

12)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http://www.kwla.or.kr/sub0301/1668> 참조.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기자협회 이었다.

그렇지만 필자를 비 해 지역 여기자들은 해당 실태조사에 참여를 제안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었다. 이에 의문이 들어 여기자협회에 문의했으나 지역 여기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며 참여하고 어도 기회조차 없다는 의미다. 가입 여부에 대해선,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여기자협회 정관을 바 야 하며 상주 직원도 없기 때문에, 지역 여기자를 회원으로 받기 어렵다는 게 돌아온 답이었다¹³⁾.

가장 의문이 들었던 건 지역방송 3사 가입 가능 여부다. 필자가 소속돼 있는 민영방송(이하 민방)은 SBS와 는 공유하더라도 회사 소유주가 다르다. 때문에 SBS가 가입을 한다고 해도 서울이 무지가 아닌 지역 민방은 동시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 B 도 았다. 서울에 있는 B 본사의 여기자들은 여기자협회 가입이 가능해도 서울을 제외한 주나 부 , 대구 지역 B 기자들은 가입할 수 없다. 지역 국 형태로 운영되는 B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다.

3년 전 여성 니케이 학회에서 당시 여기자협회 회장과 마주하는 자리가 생 다¹⁴⁾. 기자 사회의 격한 위계 인지 20여 년의 연 때문인지 분위기에 위 된 필자는 여기자협회장에게 지역 여기자가 여기자협회 가입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다른 선생 의 입을 려 했다. 하지만 앞서 밝 답변과 게 다르지 않은 답이 돌아왔다. 다만, 여기자협회 이지 에 있는 성폭력 관련 상담 수는 여기자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언론사의 여기자가 신고할 경우 수를 받겠다고 밝 으며 해당 내용도

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현재까지도 이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 여기자협회가 아닌 ‘서울’ 여기자협회로 명칭을 바 야하는 것 아니 는 가 질문도 있었지만 여기자협회장은 정관을 변경해야한다는 답변만 되 이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19년 은 지역의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됐고 해당 기자가 자신의 S S에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사화가 됐다¹⁵⁾. 게

13) 한국여기자협회 정관 제2장 제5조 회원의 입회 및 자격 1항에 따르면 ‘정회원은 국내의 일간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에 근무하는 여기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회원으로서 합당한 명예를 지키는 자로 한다. 회원은 한국여기자협회에 등록된 법인회원의 경우 입사 후 간사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14) 필자는 2018년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여러 세션 가운데 한 분야의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당시 일정 마지막 순서였던 라운드테이블에 한국여기자협회장이 패널리였다.

15) 정덕수, 「서울만 된다? 한국여기자협회의 이상한 기준」, 오마이뉴스, 2019.03.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58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참조.

시 을 보고 여기자협회장이 직 그 기자에게 전화를 어 해명했으나, 2018년 필자가 들었던 답과 다르지 않았다. 새 게 게 된 사실은 무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지역의 한 여기자가 당시 권양숙 여사가 마련한 전국 여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협회 가입을 건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¹⁶⁾

3 의 정권이 바 다. 정관을 바 고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상주 직 원을 두기에도 충분히 치는 시간이었다.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을 구분 해 만들어진 여기자협회의 적인 운영 행태가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역 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여기자협회’ 가입의 문조 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개선 의지가 없으며 중 중심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다고 단된다. 이는 역 적으로 여기자협회에서 그렇게 지 고자 했던 ‘성 중심 조직 문화에서의 여기자 권 호’ 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직 단체들의 사정은 어 까. 여변과 여가부가 실시했던 성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직 단체들 가운데 이지 확인이 불가능한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를 제외한 나 지 단체들을 비 해 전국여교수연합회 의 조직 운영 현 을 살 본 결과, 여기자협회를 제외한 다른 전문직 단체는 지역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¹⁷⁾

미국의 문화비평가이자 인 미니스 인 스는 은 더 안에서 존재하는 계 에 대해, 의 이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조명 없는 여성해방은 이를 주장하고 외치는 권력 있는 여성들만의 구호로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권계 의 여자들이 은 계 의 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경제력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자 계 에 대한 미니 논의는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특권계 의 인 여 자들과 지위 향상에 성공한 다른 인종의 여자들은, 자신과 받고 당하는 다른 여자들의 자유보다 은 계 의 자들과 은 계 특권과 사회적 권리를 원했다¹⁸⁾

16)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지역 한 여기자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해 여기자협회 가입을 건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17)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역 부회장 제도를, 전국여교수연합회는 10개 시도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여의사회는 중앙회와 지회/분회 등을 두고 있다.

18) Hooks, Bell. 2000. Where we stand : class matters. 이경아 역(2008). 벨 훅스,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기. 서울: 모티브북. 143-144쪽

지역 여기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중 이 아닌 주변부, 성 중심 조직 사회에서는 여성, 한국여기자협회에선 존재하지 않는 개인으로 아있다. ‘ 은 하나의 얼 로 오지 않는다’ 는 이 연구의 전제는 사실 사회적 다수자의 얼 또한 여러 개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소수자가 다수자가 수도 있으며 다수자로서 권력을 두를 수도 있다는 기다.

미국의 미니스 정치 학자 아이리스 리언 영은 이를 무시한 부르 는 자유와 평 은 특권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수성을 각하게 하며, 특권 집단 외의 사람들에게 불이 을 뿐만 아니라 자기 비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고 견고한 유리 천장에 금을 내겠다고 공언한 한국여기자협회의 행태가 ‘특권 집단’ 에 지는 건 필자만의 고민은 아 것이라 생각되는 이유다.

참고문헌

- 강준만(2002). 지역언론 없는 지방자치는 가능한가. 전 신문의 현실과 지역신문 살리기 방안. 지방자치연구, 10(0), 53-85 .
- 주전 기자협회(2018). 제41대 주전 기자협회 성희 · 성폭력실태조사 통계자료. 미발간.
- 주전 기자협회(2018,9,19). 제41대 주전 기자협회 성희 · 성폭력실태조사 현 . 주전 기자협회보. <http://ress.co.kr media board board. h bo table 0103 & r id 1005>
- 김양순(2018). B의 경우 여기자들의 성장과 성평 . 방송기자, 43(), 16-17 .
- 김은주(2014). 한국의 여기자. 서울 니케이 스.
- 박상지(2018,9,19). “성희 만연” 여기자 10명 중 6명 , 기자도 10명 중 3명 지역 최초 성폭력실태조사. 주전 기자협회보. <http://ress.co.kr media board board. h bo table 0103& r id 1011>
- 동일(2016).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 현대사회와 행정, 26(1) 139-163 .
- 이영이(2004). 언론사 여성리더 시대. 관훈저 , (92), 255-262 .
- 이후연(2017). 재현장의 여기자와 기자. 관훈저 , 59(4), 102-108 .
- 임상준(2019). 리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언론 경 력 확보 방안. 대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의진(2018,9,19). 주전 기자협회 이래 성폭력실태조사 실시. 주 전 기 자 협 회 보 . <http://ress.co.kr media board board. h bo table 0103& r id 1006>
- 한국기자협회(2018,10,3). 주전 기자 60% “성폭력 목격했거나 은 적 있어” . <http://.o rnalist.or.kr ne s article.html no 44938>
- 한국언론진 재단, 미 어통계 , 2019. 신, <http://s .k .or.kr ront mediaStats mediaStats ist a e.do>, 일 2020,6,3.
- 한국여기자협회, 협회소식 , 2020, 신, <http://.oman o rnalist.or.kr in o str ct.as>, 일 2020,6,3.
- 한희정, 정의진(2019). 저 리스 의 성폭력 경험과 무보도 현상 주전 기자협회 회원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니케이 학 연구, 27(1), 225-252 .

명숙(2006). 여기자들의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연구 -전 지역 여기자들의 심 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4), 364-401 .

지아(2016). 여기자들이 경험하는 직업과 성도의 관계와 양성평적 스생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학, 32(3), 27-59 .

Elmore, ind (2009), “rnin oints and rno er amon emale o rnalists omm nicatin esistance and e reSSION”, Women’ s St dies in omm cation, 32(2), .232-254.

Hardin, . and E. Whiteside(2009), “oken es onses to ended e srooms actors in the areer-related ecisions o emale e s a er St orts o rnalists”, o rnalism, 10(5), .627-646.

Hooks, Bell. 2000. Where e stand class matters. 이경아 역(2008).

스, 계에 대해 하지 않기. 서울 모 .

on, ris arion. 1990. stice and the olitics o di erence. 김도 · 조국 역(2017). 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 .